



지평선에서 추억 만들기 20일 김제 벽골제에서 '김제 지평선축제'가 개막한 가운데 쌍용마당 광장에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추억을 담고 있다. <관련기사 10면>

## 긴 추석연휴, 편안하고 안전하게

전북도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시군,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'추석 명절 민생안정 종합 대책'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.

이번 추석은 긴 연휴기간으로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방문함에 따라 구제역, AI 발생예방 및 관광지 집중현상으로 염려되는 안전사고에 대비,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, 이와 더불어 취업난 등 어려운 시민경제를 감안해,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.

또한, 도민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외에도 의료, 교통, 복지에 도·시군,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, 도민들이 여유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.

추석 연휴 기간 중 구제역과 AI 사전 차단 및 재해·재난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 지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한다.

명절 기간 태풍, 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24시간 상황근무체계 유지로 신속한 상황전파 등 선제적 대

### ▶ 도, 명절 민생안정대책 시행

재난 대처 상황근무체계 유지  
소외계층 위문 나눔문화 확산

귀성·귀경 임시서비스 대기  
상습정체구간 중점 관리

응급기관 비상진료체계 구축  
응 강화에 힘쓴다.

아울러,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내 전 소방관서(소방본부 1, 소방서 10, 안전센터 51)에서 1만428명이 특별 경계근무(소방 2,705, 의무소방 133, 의용소방대 8,220)를 실시하고,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168개소에 소방특별조사, 대형마트 등 49개소에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.

취업난과 경기 상황 악화로 소비가 많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통시장 활성화, 직거래장터 운영 등 지역상품 판매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.

추석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32개 명절 성수품에 대해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물가 동향을 집중

관리한다.

특히, 명절을 앞두고 도내 소상공인,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31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완화하고,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합동 지도반을 편성·운영한다.

추석 명절을 맞아 도·시군 공무원 및 유관기관 등 전 공공기관이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선다.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가정 등 2,450세대에 생계비 2억4300만원을 지원하고, 사회복지시설 240개소에 대해 차례상차리기 비용 등 46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. 또한 어려운 사회복지이용시설에 위문하여 40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한다.

편안하고 안전한 귀성, 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임시서비스(25대/일)를 상시 대기하고 철도 운영을 8회 증회하는 등 교통통행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한다.

지방도 및 시군도(7,641km)에 대한 도로 시설물(안전시설 등) 정비 추진과 신속한 도로 정비를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, 터미널 등 불법 주정차 구역과 상습정체구간 33개소를 중점 관리해 편안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

도한다.

다채로운 문화행사 및 문화 시설 무료할인, 시설개방을 통해 도민과 귀성객들에게 풍성한 전북의 즐길거리를 제공한다.

민속놀이, 민속체험,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한국전통문화전당, 전주역사박물관 등 도내 35개소에서 운영한다.

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 22개소를 지정,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, 당직의료기관,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.

감염병 발병 및 집단 환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(비상방역반 15개반 운영),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지정활동(1,385명), 콜레라 방역 대책반 운영한다.

김승일 행정부지사는 "이번 추석 연휴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재난·재해 및 가축 감염병 관리 등에 대한 중점 관리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, 대대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, 소외계층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하여 모든 도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."고 말했다. /김진성 기자

### '청탁금지법' 어느새 1년

## 국민 89% '법 효과 있다' 인식

### 실제 청탁 감소 효과
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청탁금지법)이 시행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법 시행 초기보다 선물 교환과 직무 관련 부타이 60%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사회학회회는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진행된 '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: 투명성, 공정성, 신뢰성에 미친 효과' 학술조사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

이번 조사는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(1차 조사)과 올해 8월(2차 조사)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. 법 시행 직후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려는 의도였다.

그 결과 직무관련 부타이 법 시행 초기 때보다 줄었다는 응답

자가 65.9%였으며 아니라고 말한 사람은 34.1%로 나타났다. 또 응답자의 65.5%는 선물 교환이 줄었다고 말했으며 '아니다'고 답한 사람은 34.5%였다.

회식문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.8%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더치페이는 상당폭 증가했다. 더치페이가 줄었다고 느낀 사람은 42.8%로 나타났으나, 늘었다고 답한 사람은 57.2%나 됐다.

또 응답자의 88.4%는 법 시행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43.8%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다. 효과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었다고 답한 사람은 10.5%에 그쳤다. 또 85.4%의 사람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찬성했다.

청탁금지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도 늘었다. 법 대상자는 시행 초기 34.3%만이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, 10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45%가 법 강화를 찬성했다. /뉴스시스

## 추석 명절자금 대폭 방출

### 도, 취약계층·건설공사 등 1031억원 최우선 앞당겨 집행

전북도는 최대 명절인 추석명절을 맞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명절 재정자금 집행을 확대, 운용한다.

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생활시설 차례상차리기 지원비, 취약계층 생계급여,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,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과 각종 건설공사 1,081억원을 최우선으로 앞당겨 집행하게 된다.

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생계급여 234억원, 장애인연금 및 수당 32억 등 총 사회복지 예산 591억원 정도이

며, 전북연구원 발간 증축 건축공사 등 건설공사 대금으로 140억원, 인건비에 100억원 및 기타 농·축산분야 사업비 등에 200억원 정도를 민생경제 각 분야에 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전북도는 추석명절 자금집행을 위해 정기예금 등으로 보유한 자금 중 1,000억원을 대기자금으로 관리, 사회복지 지원, 물품 및 공사 대금 등 자금청구에 맞추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.

또한,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과 노인의 체불부부를 확인해 대금이 미지급된 현상에 대해서는 자금집행을 지연하고, 하도급사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·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. /김진성 기자

### 매일 INDEX

12면 -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

**“더 낮은 자세로,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.”**

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 · 시민입장에서 일하는 의회 ·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

**남원시의회**  
NAMWON CITY COUNCIL

<http://council.namwon.go.kr>